

<2010년 7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마음과 몸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그냥 놔두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말로 막고, 몸으로 막아야 흘러가지 않는 것이다.
2. 자기 몸과 마음을 그냥 놔두면 육신은 육성대로 흘러가고, 마음은 마음대로 흘러간다. 주의 말씀으로 막고, 또 몸으로 행하여 몸과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하게 시간마다 다스려야 된다.
3. 냇물은 막기 쉬워도 강물은 막기 어렵고, 바다로 가 버리면 아예 막을 수 없어 끝난다. 실 가닥 같은 물은 한 삽 흠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범람하는 물은 한 삽 흠으로는 못 막는다.
네 마음은 물과 같다. 네 마음이 어떤 그릇된 것과 이성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생각하며 실 가닥같이 다른 데로 흐를 때, 네 마음이 게으름과 태만으로 실 가닥같이 흐를 때 즉시 막아라. 그 마음이 내(川)가 되어 흘러가고, 강이 되어 흘러가고, 바다가 되면 못 막는다.
마음은 처음 출발할 때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한다. 고로 그때는 막을 수 있다.
4. 곡식밭의 잡초는 언제 뽑아도 뽑아야 되니, 눈에 보이기만 하면 뽑아서 깨끗이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마음에 불의한 생각이 있으면 작고 작은 잡초라도 즉시 뽑듯이 즉시 뽑아내야 된다.
영경귀가 어릴 때는 곡식같이 부드럽고, 가시나무가 어릴 때는 가시가 없다. 그러므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다 뽑아야 된다. 크면 손 찌르고 마음 찢어서 못 뽑는다. 찌르는 것이 없고 부드러워 손에 잡힐 때 뽑아 버려야 된다.
마음의 불의한 생각도 작을 때 깨끗하게 뽑아내야 하듯이, 모든 거친 일들도 작을 때 다 뽑아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5. 마음속의 아주 작고 작은 잡초 씨라도 다 들춰내어 태워야 된다. 추호도 남김없이 깨끗이 해야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항상 역사하신다.

6. 잡초는 마귀요, 악이요, 자기를 죽이는 독초다.